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능력

채명옥*

¹청주대학교 간호학과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Myung-Ock Chae*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서울과 청주 소재의 간호대학생 299명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PSS WIN 18.0을 이용한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은 중간수준 이상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학년, 입학 동기,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 동아리 활동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공감능력은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 따라, 대인관계능력은 학년,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능력의 영향요인은 자아탄력성 ($\beta=488, p<.001$), 공감능력 ($\beta=378, p<.001$)으로 나타났고,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47.2%였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을 유의한 변수로 규명한 것은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과 공감능력을 증진시키는 효율적인 관리와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among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from November 2 to December 11, 2015. The subjects consisted of 299 nursing students who were selected using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vealed that ego resilience ($\beta=488, p<.001$) and empathic ability ($\beta=378, p<.001$) were significant predictors and accounted for 47.2%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t is meaningful that ego resilience affec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Therefore, ego resilience and empathic ability need to be increased by efficient management and intervention to facilitat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Keywords :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Nursing stud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기관의 대형화에 따른 경쟁심화로 병원 경영의 최우선 과제는 환자 중심의 서비스와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1]. 이러한 의료 환경의 변화는 병원 인적자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관건으로 대두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간호사의 역량 중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생의 대인관계는 그 폭과 깊이를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이므로 이전의 발달단계보다 더욱 중요하다[2]. 이에 더하여 간호대학생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취약한 다양한 대상자들과 지속적이고 지지적인 돌봄

*Corresponding Author : Myung-Ock Chae(Cheongju Univ.)

Tel: +82-10-3379-9328 email: 7702cmo@korea.com

Received February 19, 2016

Accepted May 12, 2016

Revised (1st March 11, 2016, 2nd March 31, 2016, 3rd April 26, 2016)

Published May 31, 2016

을 제공할 수 있는 치료적 관계를 형성해야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능력은 매우 중요하다[3]. 또한,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실제 간호사로 활동하게 되면 동료간호사, 의사, 검사실 직원, 타 부서 행정직원간의 조정자 역할도 해야 하는데[4], 대부분의 신규간호사나 임상간호사는 업무 관련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반되는 업무수행능력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5].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공감은 간호사와 대상자의 치료적 대인관계의 기본이 되며[6],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진실한 공감능력은 대상자에 대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7,8], 대상자에 대한 안전사고 비율도 감소하게 했다[9]. 이러한 이유로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대학생이 함양해야 하는 역량으로 공감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직관 정립과 행동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ABON])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해 간호교육인증평가의 교육과정 중에 인문사회과학 관련 교과목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적절한 자아통제를 통해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이루는 능력이며[10],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게 하고 유연성 있는 대처능력을 활용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부정적 경험에서 회복하게 한다[11]. 그러므로, 자아탄력성은 간호대학생 개인의 내적 요인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하는 요소로 작용하여[12],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인관계능력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2,14-16], 공감능력[14,16]과의 관계, 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효과[17,18] 등이 대부분으로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을 모두 포함한 요인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 공감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그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자아탄력성과 공감능력

을 장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을 파악하고,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을 파악한다.
-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을 확인한다.
- 셋째,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의 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청주 소재 2개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방법을 ANOVA, 효과크기 .25, 검정력 .90, 유의수준 .05로 하였을 때 23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310부를 배부하여 총 305부의 자료가 회수되었으나 회수한 자료 중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6부(2%)를 탈락시키고 최종 299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Block과 Kremen[10]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 ER)를 Yoo와 Shim[19]

이 변안하고 수정·보완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대인관계 3문항, 호기심 5문항, 감정통제 2문항, 활력성 2문항, 낙관성 2문항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와 Shim[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6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7이었다.

2.3.2 공감능력

본 연구에서는 Davis[20]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on Index [IRI])를 Jeon[21]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인지 공감 15문항, 정서 공감 15문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한 5점 Likert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Yang, Lim과 Lee[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2.3.3 대인관계능력

본 연구에서는 Schlein, Guernsey와 Stover [23]가 개발한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Moon[24]이 변안한 대인관계 변화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만족감 4문항, 의사소통 4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5문항, 이해성 4문항의 7개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Yeom과 Jeon[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9였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5년 11월 2일에서 12월 11일까지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설문지 배부 전에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 연구 참여 도중 중도탈락,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연구 문의 등이 기술된 설명문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들로부터 연구 참여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에는 본 연구로 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

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에 자유의사로 참여할 것,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 WIN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은 t-test 와 ANOVA, Scheffe' test로 사후 검증하였다.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연령은 20.89세였고, 성별은 여학생이 97.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학년은 24.1~26.4%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건강상태는 59.9%가 ‘좋다’고 응답하였고, 입학 동기는 ‘높은 취업률’이 2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적성에 맞아서’ 23.4%, ‘부모님 및 선생님의 권유’ 22.4%, ‘고등학교 성적’ 12.4%의 순이었다. 대학생 활과 간호학과 전공은 각각 41.5%, 37.8%가 ‘조금 만족한다’고 하였고, 동아리는 53.5%가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3.2 자아탄력성,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능력 수준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 수준은 Table 2와 같다. 자아탄력성은 4점 만점에 평균 2.73점,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9점,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59점으로 나타났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은 Table 2와 같다. 자아탄력성은 학년

($F=7.123, p<.001$), 입학 동기($F=2.191, p=.035$), 대학생활 만족도($F=3.666, p=.006$), 간호학 전공 만족도($F=5.104, p=.001$), 동아리 활동($F=3.430, p=.034$)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분석 결과 학년에서 4학년이 3학년에 비해, 대학생활 만족도와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대상자가 ‘보통이다’와 ‘조금 불만이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동아리 활동에서 ‘이전에 활동했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전혀 활동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은 학년($F=3.263, p=.022$), 대학생활 만족도($F=4.365, p=.002$), 간호학 전공 만족도($F=5.140,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분석 결과 학년에서 4학년이 3학년보다, 대학생활 만족도와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대상자가 ‘보통이다’와 ‘조금 불만이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공감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은 학년($F=11.438, p<.001$), 건강상태($F=5.728, p=.004$), 대학생활 만족도($F=6.934, p<.001$), 간호학 전공 만족도($F=8.341,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분석 결과 학년에서 4학년이 1, 2, 3학년에 비해, 건강상태에서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나쁜 편이다’라고 답한 대상자에 비해,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한다’와 ‘조금 만족한다’고 답한 대상자가 ‘조금 불만이다’라고 답한 대상자에 비해,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대상자가 ‘보통이다’라고 답한 대상자에 비해 대인관계능력이 더 높았다. 또한,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대상자가 ‘조금 만족한다’, ‘보통이다’, ‘조금 불만이다’, ‘매우 불만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대인관계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공감능력은 자아탄력성($r=.246,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인관계능력은 자아탄력성($r=.581, p<.001$), 공감능력($r=.498,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5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년,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의 4개 변수 및 대인관계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변수를 가능한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여 회귀식으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939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064로 10 이하를 나타내 다중 공선성 (Multi-collinearity)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잔차의 독립성 검증 결과 표준화 잔차가 $-3.523-3.438$ 이고, Durbin-Watson 값이 1.919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학년,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와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모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Age (yr)		20.89±1.73
Gender	Female	291(97.3)
	Male	8(2.7)
Grade	1	79(26.4)
	2	72(24.1)
	3	76(25.4)
	4	72(24.1)
Health status	Good	179(59.9)
	Common	107(35.8)
	Bad	13(4.3)
Entrance motive	High employment rate	75(25.1)
	Appropriate aptitude	70(23.4)
	Recommendation by parent and teacher	67(22.4)
	High school record	37(12.4)
	Good image and experience on nurse	27(9.0)
	Have a service job	11(3.7)
	Overseas expansion	7(2.3)
	Others	5(1.7)
	Satisfaction on university life	Very satisfied
A little satisfied		124(41.5)
Common		79(26.4)
A little unsatisfied		50(16.7)
Very unsatisfied		7(2.3)
Satisfaction on major	Very satisfied	65(21.7)
	A little satisfied	113(37.8)
	Common	83(27.8)
	A little unsatisfied	28(9.4)
	Very unsatisfied	10(3.3)
Circle activity	Up to date	160(53.5)
	Before	105(35.1)
	Not at all	34(11.4)

Table 2.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99)

Variables	Categories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Mean ± SD	t or F(p) Scheffe	Mean ± SD	t or F(p) Scheffe	Mean ± SD	t or F(p) Scheffe
Gender	Female	2.73±0.34	0.531 (.611)	3.70±0.36	-1.303 (.232)	3.59±0.40	0.803 (.448)
	Male	2.79±0.30		3.53±0.37		3.75±0.57	
Grade	1 ^a	2.75±0.34	7.123 ($<.001$)** c<d	3.73±0.32	3.263 (.022)* c<d	3.61±0.39	11.438 ($<.001$)** a,b,c<d
	2 ^b	2.71±0.36		3.67±0.37		3.51±0.43	
	3 ^c	2.61±0.26		3.60±0.36		3.45±0.37	
	4 ^d	2.85±0.34		3.78±0.40		3.80±0.35	
Health status	Good ^a	2.75±0.31	2.089 (.126)	3.70±0.35	0.036 (.965)	3.64±0.38	5.728 (.004)** a>c
	Common ^b	2.71±0.35		3.69±0.40		3.54±0.41	
	Bad ^c	2.57±0.44		3.70±0.33		3.30±0.51	
Entrance motive	High employment rate	2.64±0.34	2.191 (.035)*	3.64±0.34	1.486 (.172)	3.52±0.40	1.737 (.100)
	Appropriate aptitude	2.75±0.35		3.80±0.35		3.68±0.35	
	Recommendation by parent and teacher	2.75±0.30		3.70±0.36		3.58±0.41	
	High school record	2.69±0.33		3.60±0.39		3.53±0.45	
	Good image and experience on nurse	2.87±0.36		3.71±0.39		3.69±0.45	
	Have a service job	2.73±0.39		3.67±0.41		3.52±0.44	
	Overseas expansion	2.99±0.16		3.73±0.21		3.85±0.24	
	Others	2.76±0.16		3.58±0.49		3.50±0.31	
Satisfaction on university life	Very satisfied ^a	2.91±0.38	3.666 (.006)** a>c,d	3.87±0.39	4.365 (.002)** a>c,d	3.82±0.42	6.934 ($<.001$)** a,b>d a>c
	A little satisfied ^b	2.73±0.34		3.72±0.35		3.64±0.36	
	Common ^c	2.69±0.29		3.62±0.36		3.50±0.37	
	A little unsatisfied ^d	2.66±0.33		3.59±0.34		3.44±0.43	
	Very unsatisfied ^e	2.69±0.24		3.80±0.38		3.53±0.58	
Satisfaction on major	Very satisfied ^a	2.87±0.36	5.104 (.001)** a>c,d	3.84±0.38	5.140 (.001)** a>c,d	3.81±0.39	8.341 ($<.001$)** a>b,c,d,e
	A little satisfied ^b	2.74±0.33		3.71±0.34		3.58±0.37	
	Common ^c	2.65±0.27		3.62±0.35		3.50±0.35	
	A little unsatisfied ^d	2.63±0.30		3.57±0.36		3.51±0.45	
	Very unsatisfied ^e	2.69±0.54		3.54±0.35		3.28±0.58	
Circle activity	Up to date ^a	2.73±0.35	3.430 (.034)* b>c	3.68±0.36	1.034 (.357)	3.57±0.41	1.844 (.160)
	Before ^b	2.77±0.32		3.73±0.38		3.65±0.39	
	Not at all ^c	2.60±0.30		3.65±0.35		3.51±0.40	
Total		2.73±0.34		3.69±0.36		3.59±0.40	

a : difference of group 2 and group 3

* $p<0.05$, ** $p<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N=299)

Variables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Ego resilience	1		
Empathic ability	.246($<.001$)**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581($<.001$)**	.498($<.001$)**	1

* $p<0.05$, ** $p<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N=299)

Variables	B	β	S. E	t	p
Ego resilience	0.588	.488	.052	11.196	$<.001$ **
Empathic ability	0.419	.378	.048	8.682	$<.001$ **
Constant = 0.439 F(p) = 132.291($<.001$) R2 = .472					

* $p<0.05$, **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으나 여러 개의 모형이 선택되었고 설명력의 변화가 적을 때는 적은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모형을 선택한다는 기준[26]에 따라 자아탄력성, 공감능력을 영향요인으로 한 모형을 최종 선택하였다.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최종 영향요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beta=488, p<.001$), 공감능력($\beta=378, p<.00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대인관계능력을 47.2% 설명하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파악하고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틀을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4점 만점에 평균 2.73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고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Park과 Kwon[12], Yang[27], Shin과 Park[28]의 연구에서 평균 2.80점이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Lee[29]의 연구에서 평균 2.87점이었던 것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졸업 후 임상간호사 역할을 주로 하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아가 탄력적이면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고 인지적 능력 또한 우수해 직면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30], 간호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임상현장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뛰어난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자의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9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고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Ji[31]의 연구에서 평균 3.68점이었던 결과와 차이가 없었다. 공감은 환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조건이며 그 치료적 대인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 인자라고 하였으므로[32],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학과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59점으

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했던 Lim과 Yi[4]의 연구에서 수술실간호사 평균 3.30점, 병동간호사 평균 3.50점, Ko와 Kim[1]의 연구에서 평균 3.44점 이었던 결과보다 다소 높았다. 간호사는 간호대학생일 때보다 다양한 대상자와 더 많은 접촉 및 대인관계 기회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치료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간호사의 대인관계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학년, 입학 동기,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 동아리 활동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중 입학 동기에서 사후분석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않았으나 ‘높은 취업률’과 ‘고등학교 성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자아탄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공학과를 선택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자아탄력성[33]이 낮아 본인의 적성이나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사회적 여건이나 주위 환경에 따라 간호학과를 선택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동아리 활동에서 사후분석 결과 ‘이전에 활동했다’고 답한 대상자가 ‘전혀 활동한 적이 없다’고 답한 대상자보다 통계적으로 자아탄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아리는 능동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면서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격적 만남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성장과 경험의 폭을 넓히는 활동이 될 수 있어[34],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전에 활동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보다 자아탄력성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이전에 활동했다’고 답한 대상자 대부분이 3, 4학년이고,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고 답한 대상자의 대부분은 1, 2학년으로,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을 하게 되면서 동아리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3, 4학년이 ‘이전에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동아리 활동기간은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는 1, 2학년보다 길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 중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 따라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Yang[27]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공감

능력에 차이가 있었던 것 결과와 일치한다. 사후분석 시 학년에서 4학년의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긴 하였으나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이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별로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후분석 결과에서 대학생활 만족도와 간호학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Ji, Bang과 Jeon[35]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았고, Chung[14]의 연구에서도 간호학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체로 공감능력과 대인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던 결과와 동일하다. 간호대학생의 높은 대학생활 만족도와 간호학 전공 만족도가 일상생활 전반의 사고와 행동에 기초가 되는 개인적 성향인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일반적 특성 중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Kim[15]의 연구에서 건강상태에 따라 ‘매우 좋은 편이다’이다 라고 응답한 간호대학생이 ‘나쁘다’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대인관계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인지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대인관계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여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 간의 상관관계에서 공감능력은 자아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중앙간호사를 대상으로 했던 Cho와 Jung[36]의 연구에서도 공감과 자아탄력성이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공감이 지나치면 간호사에게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를 초래할 수 있는데[37], 공감피로란 자신의 회복력을 넘는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나타나는 회복력 상실상태를 말하며[38],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공감피로가 낮게 나타난 결과[39]와 일맥상통한다. 한편, 대인관계능력은 자아탄력성, 공감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간호사를 대상으로 했던 Lee, Gu와 Kim[40]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던 결과와 일치했고, Chung[14]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대인관계와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Jung[16]의 연구에서도 인지공감, 정서공감은 대인관계와 순상관계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자아탄력성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게 하며[41], 상대방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공감은 상호 간의 사회적 작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16], 대인관계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 공감능력의 순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대인관계능력을 47.2% 설명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을 유의한 변수로 규명한 것은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공감능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정 연계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서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학년,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가 설명력이 낮았던 이유는 추후 연구를 통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을 파악하고,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은 중간수준 이상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학년, 입학 동기,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 동아리 활동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공감능력은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 따라, 대인관계능력은 학년,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영향 요인은 자아탄력성, 공감능력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7.2%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명력이 낮아 제외되었던 학년,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를 포함한 일반적 특성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를 규명하는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규명된 자아탄력성과 공감능력을 포함하고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영향요인을 모두 반영한 대인관계능력을 설명하는 모형구축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H. R. Ko, J. H. Kim,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3, pp.413-423,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3.413>
- [2] M. S. Lee, K. M. Chae,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Vol.12, No.1 pp.63-75, 2012.
- [3] B. N. Doh, Y. S. Kim, T. K. Kim, H. M. Kim, H. S. Kim, H. S. Park, J. M. Seo, Y. H. Song, H. R. Ahn, K. O. Oh, K. R. Lee, K. J. Lee, M. R. Lee, S. Y. Lee, J. Y. Lee, H. K. Lee, W. H. Jeon, J. Choi,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pp.105-168 Seoul: Jungdam Publishing, 2009.
- [4] E. J. Lim, Y. J. Yi, "Comparison of Operating Room Nurses and General Ward Nurses on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within the Medical Team",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20, No.3, pp.314-322, 2014.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4.20.3.313>
- [5] H. J. Kwon, H. S. Kim, G. S. Choi, K. S. Lee, Y. H. Sung, "A Study on Verbal Abuse Experienced at Medical Center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13, No.2, pp.113-124, 2008.
- [6] Herdman EA. "Nursing in A Post Emotional Society", *Nursing Philosophy*, Vol.5, No.2, pp.95-103, 2004.
DOI: <http://dx.doi.org/10.1111/j.1466-769X.2004.00169.x>
- [7] K. S. Han, Y. J. Oh, S. J. Lee, S. K. Cha, H. C. Kang, "Influencing Factors on Emotional Competencies of Nurs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17, No.1 pp.19-25, 2009.
- [8] Penprase B, Oakley B, Ternes R, Driscoll D. "Empathy as A Determining Factor for Nursing Career Selection",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52 No.4, pp.192-197, 2013.
DOI: <http://dx.doi.org/10.3928/01484834-20130314-02>
- [9] Ward J, Schaal M, Sullivan J, Bowen ME, Erdmann JB, Hojat M.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Jefferson Scale of Empathy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Vol.17, No.1, pp.73-88, 2009.
DOI: <http://dx.doi.org/10.1891/1061-3749.17.1.73>
- [10] Block J, Kremen A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2, pp.349-361, 199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0.2.349>
- [11] Tugade MM, Fredrickson BL.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6, No.2, pp.320-333, 2004.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86.2.320>
- [12] Y. S. Park, Y. H. Kwon, "Ego Resilienc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3, pp.341-350,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3.341>
- [13] J. Y. Kim, "The Influence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on Interpersonal Problems in Undergraduate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2007.
- [14] M. S. Chung, "Relations o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2, pp.332-340,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332>
- [15] H. J. Kim,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Body-Image, and Self-estee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1, pp.62-70,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62>
- [16] M. Jung, "Influence of Ego States, Self Esteem, and Empath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7 pp.4614-4620,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614>
- [17] J. S. Won, H. S. Shin, "The Effect of Small Group Based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the competency of communication and the Human Relationship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4, No.2, pp.60-66, 2008.
- [18] H. M. Kim, "The Effect of the Solution-focused Communication Training on th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Vol.18, No.4, pp.399-408, 2009.
- [19] S. K. Yoo, H. W. Shim,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Journal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Vol.16, No.4, pp.189-206, 2002.
- [20] Davis MH.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Boulder: Westview Press, 1996.
- [21] B. S. Je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2003.
- [22] S. Y. Yang, H. N. Lim, J. H. Lee,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1, pp.183-193,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183>

- [23] Schlein S, Guerny B, Stover L.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a University. Philadelphia, 1971.
- [24] S. M. Moon,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Vol.19, No.2, pp.195-203, 1980.
- [25] E. Y. Yeom, H. O. Jeon, "Relations of Burnout, Interpersonal Relations,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Depression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6, pp.2869-2879,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869>
- [26] J. H. Kang, "A Statistical Analysis to Follow Using the SPSS Program", pp.189-197, Seoul: Crown Publishing Company, 2012.
- [27] S. Y. Yang,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Ego 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3, pp.1699-1710, 2015.
- [28] E. J. Shin, Y. S. Park,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11, pp.5636-5645,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1.5636>
- [29] E. H. Park, E. T. Lee, "The Effects of Undergraduates'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Ego-resilience on Jobs Seeking Stres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4, No.4, pp.5-30, 2013.
- [30] Block JH, Block H.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13, No.1, pp.39-101, 1980.
- [31] E. J. Ji,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Empathic Ability on Communication Ability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6, No.3, pp.1685-1697, 2014.
- [32] Larson EB, Yao X. "Clinical Empathy as Emotional Labor in the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293, No.9, pp1100-1106, 2005.
- [33] Fernandez-Berrocal P, Alcaide R, Extremera N, Pizarro D. "The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Vol.4, No.1, pp.16-27, 2006.
- [34] Y. S. Kim, "The Influence of Peer Relationship on Participation Sports Circle Ac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32, No.2, pp.1205-1216, 2008.
- [35] E. J. Ji, M. R. Bang, H. J. Jeon, "Ego 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4, pp.571-579,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4.571>
- [36] H. J. Cho, M. S. Jung, "Effect of Empathy, Resilience, Self-care on Compassion Fatigue in Oncology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20, No.4, pp.373-382, 2014.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4.20.4.373>
- [37] Abendroth M, Flannery J. "Predicting the Risk of Compassion Fatigue: A Study of Hospice Nurses", Journal of Hospice & Palliative Nursing, Vol.8, No.6, pp.346-356, 2006.
DOI: <http://dx.doi.org/10.1097/00129191-200611000-00007>
- [38] S. K. Coetzee, H. C. Kloppe, "Compassion Fatigue within Nursing Practice: A Concept Analysis", Nursing and Health Sciences, Vol.12, No.1, pp.235-243, 2010.
DOI: <http://dx.doi.org/10.1111/j.1442-2018.2010.00526.x>
- [39] Huggard PK. "Managing Compassion Fatigue: Implication for Medical Education", New Zealand: University of Auckland, 2008.
- [40] O. S. Lee, M. O. Gu, M. J. Kim,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6 pp.3902-3910,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6.3902>
- [41] S. Kim, K. Min, "Comparison of Three Resilience Scales and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25, No.2, pp.223-243, 2011.

채 명 옥(Myung-Ock Chae)

[정회원]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의 안전, 성장발달, 시뮬레이션교육